

철강금속 (Overweight)

흔들리는 관세 속에서
살짝 기회가 느껴진거야...

철강금속 산업 포인트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25% 도입할 것이라 발표. 1기 때와 같이 협상을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들은 쿼터제 또는 저율 할당관세 방식으로 수입 규제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동향은 지켜보아야. 현행 쿼터 유지 시 낙폭 과대 종목 되돌림 가능성 높아 보임

철강/금속 이유진_02)368-6141_eugenelee@

- **트럼프,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 부과 예고:** 트럼프는 일요일(2/9)에 금속(철강, 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를 도입할 것이며, 이번주 내로 상호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 말했음
- **트럼프 1기 철강 관세 Timeline:** 2017년 4월 미국 상무부는 자체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2018년 1월 종료됨. 2018년 3월 철강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수입을 조정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철강 제품에 종가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 이 때 호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브라질, EU는 미국과 중요한 안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관세를 면제하고, 대체 수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2018/6/1까지 면제). 2018년 4월, 대한민국은 수입 쿼터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같은 해 5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쿼터국이 되었고, 2022년 협상을 통해 EU, 일본은 저율할당관세(TRQ)를 부여 받았음. 이러한 철강 수입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도 동일한 기조 유지
- **미국 철강 시장:** 2024년 미국 조강 생산량은 8,080만톤, 철강재 수입량은 2,618만톤으로 대략적으로 연간 명목 소비는 9,500만~1억톤으로 추정. 관세 부과 시 내수 가격은 올라갈 것이며, Nucor 및 SSAB 등은 1월부터 판재 가격 인상 중. 다만, 현재 미국 내 리쇼어링이 진행 중인데 철강재 가격 인상 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기와 비슷하게 주요국과는 쿼터 또는 저율할당관세로 협의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그러나 실제 협상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높고, 쿼터 폐지 시 국내 철강업 피해는 매우 클 것. 그러나 쿼터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만 유지된다면 하락 폭이 큰 업체들의 주가 되돌림도 기대 가능할 것(미국 전기로 비중 70.6%)
- **강관 업체:** 트럼프의 에너지 투자로 강관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음. 다만, 국내 업체들은 쿼터가 있는 이상 가격 효과만 누릴 수 있고, 물량 증가 효과는 미국 내 생산 법인이 있는 업체만 누릴 수 있음. AISI(미국 철강협회)는 최근 트럼프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 내 철강 무역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산 유정관에 대해 쿼터를 줄이라는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쿼터 협상 전까지는 한국 철강 업체들의 불확실성 확대 예상

미국 연간 철강재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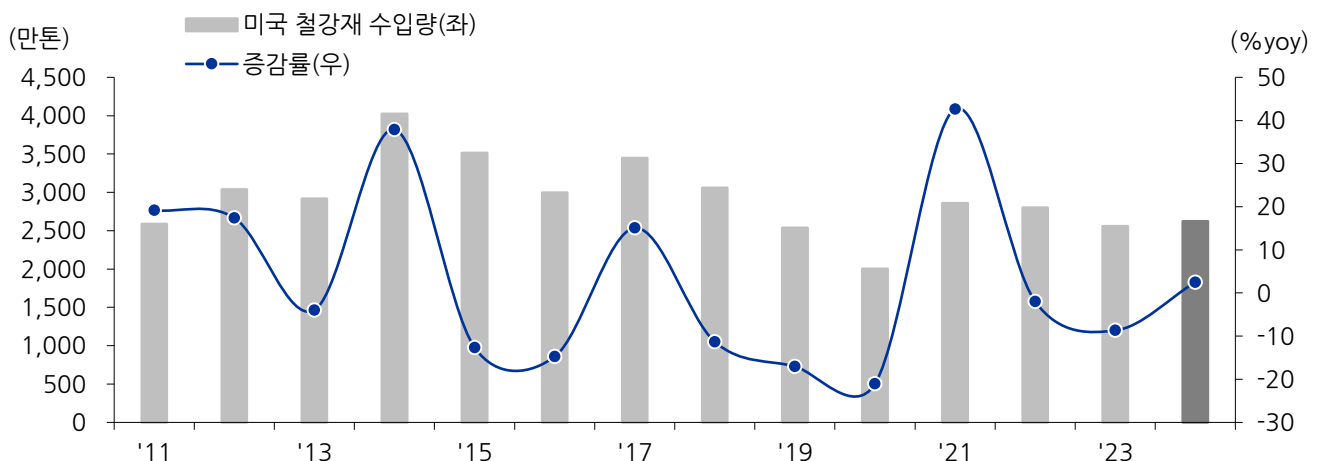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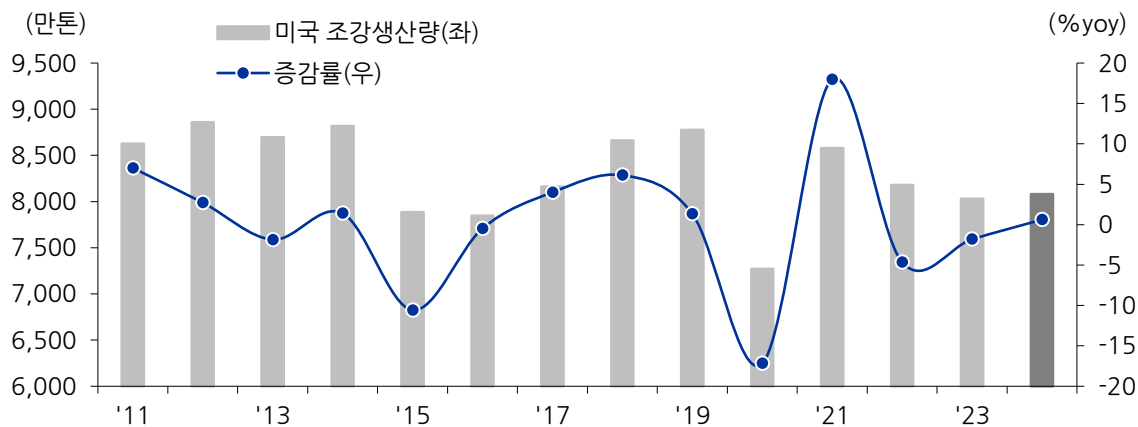


도표 1. 2024년, 2023년 미국 국가별 철강 수입량 추이

(만톤, %)	2024년	2023년	전년비
캐나다	594.9	624.6	-4.8
브라질	408.1	357.6	14.1
멕시코	319.1	379.6	-15.9
한국	254.8	239.2	6.5
베트남	123.7	50.8	143.5
일본	107.0	107.9	-0.8
독일	97.4	94.5	3.1
대만	91.7	52.5	74.7
네덜란드	55.7	46.1	20.8
중국	46.1	54.3	-15.1
전체	2,618.0	2,555.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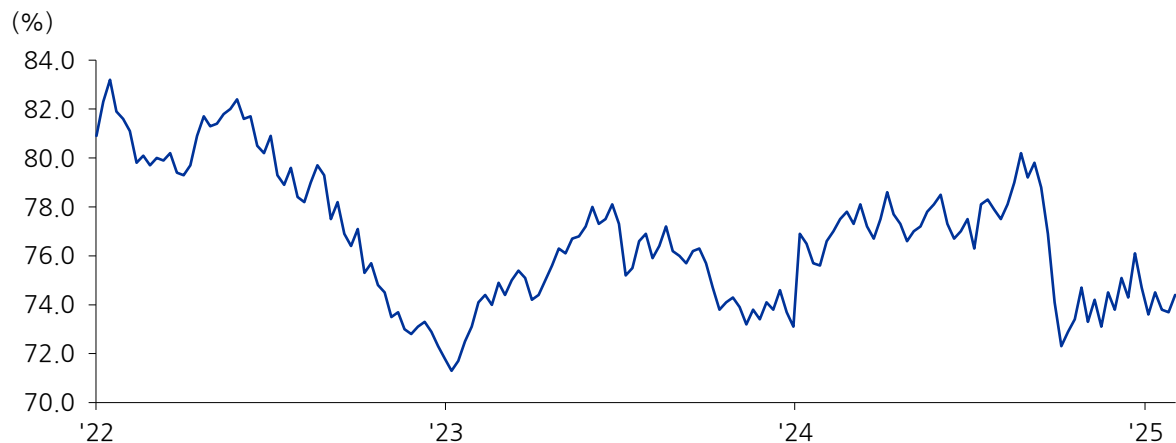
자료: AISI,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미국 연간 조강 생산량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3. 미국 철강 업체들 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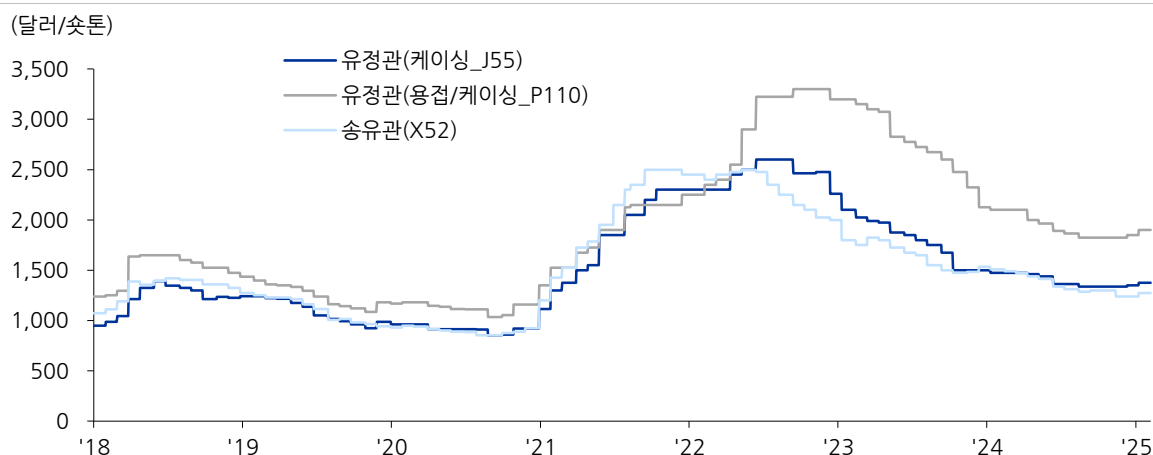
자료: AISI,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미국 철강 업체의 성명문(2025/1/22): 한국 OCTG 쿼터 줄여줘!

- **Section 232 remedy on steel imports** — Ensure that the Section 232 steel tariff remedy achieves the objectives established in the 2018 Section 232 report, namely that the domestic steel industry operates at or above 80 percent capacity utilization. Absent effective relief under the Section 232 program, overproduction of steel in countries where there is significant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steel sector can result in renewed injurious surges in steel imports, threatening the viability of domestic steel producers and U.S. national security. Improvements to the Section 232 program should include:
 - > Measures to address the rampant abuse of the existing Section 232 exclusions process by importers, including the outright elimination of General Approved Exclusions (GAEs);
 - > A requirement that only steel products from Canada and Mexico that were melted and poured in North America are eligible for duty-free treatment;
 - > Reinstatement of the 25 percent tariff and/or downward adjustments in quota and tariff-rate quota levels to account for reduced domestic demand for specific steel products, for example by reducing the quota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from Korea; and
 - > Expansion of the Section 232 measures on steel to downstream products such as laminations and cores for electrical transformers, automotive exhaust systems, fabricated structural steel and prestressed concrete strands.

자료: AISI, 유진투자증권

도표 5. 미국 유정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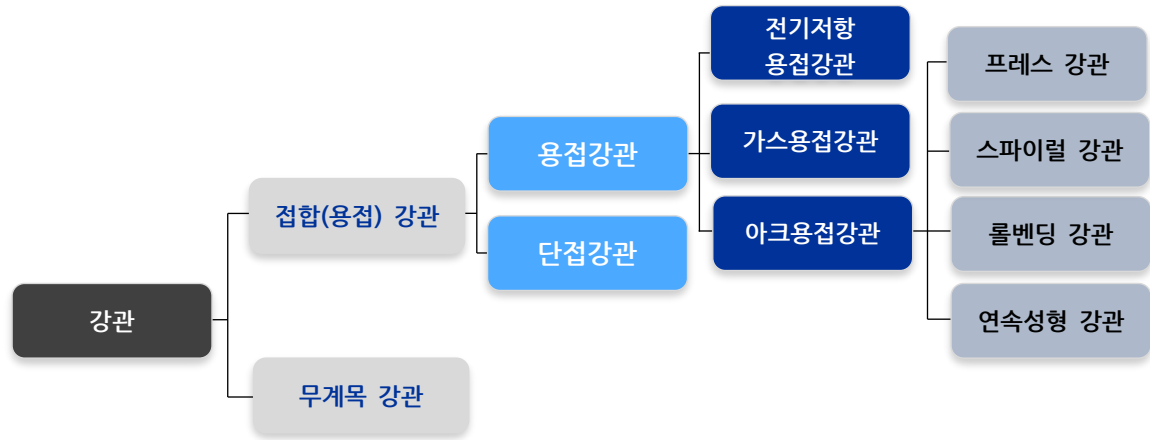
자료: AISI, 유진투자증권

도표 6. 국내 강관 회사 중 미국 생산 법인이 있는 회사

기업	미국 내 CAPA	위치	지분율	기타
세아제강지주	20~25 만톤	휴스턴, 텍사스	100%	SeAH Steel USA(舊 OMK Tune, Laguna Tubular Products)
넥스틸	12 만톤	휴스턴, 텍사스	50.88%	Nexteel Saha
휴스틸	7.2 만톤	클리브랜드, 텍사스	61.30%	Husteel America, 공사일정 지연으로 25년 6월 말 완공 예상 2 단계 투자 시 25 만톤으로 CAPA 확장 예상

자료: 각 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7. 강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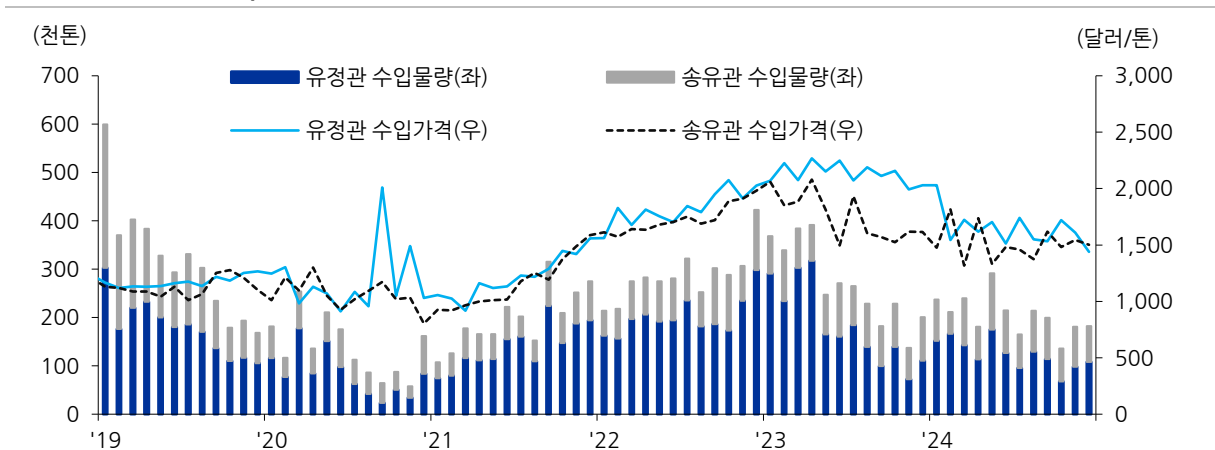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8. 강관의 종류, 제조방식, 사용처

강관		제조방식	사용처
배관용 강관		ERW, 스파이럴, 롤벤딩, 무계목	증기, 물, 가스, 공기 등의 이송
구조용 강관	기계구조용	ERW, 프레스, 롤벤딩, 무계목	기계, 자동차 등의 기계부품에 사용
	일반구조용	ERW, 스파이럴, 롤벤딩	토목, 건축 등의 구조물에 사용
	강관 말뚝	ERW, 스파이럴, 롤벤딩	토목, 건축 등의 구조물의 기초용 강관
	비닐하우스용	ERW	비닐하우스
송유관용 강관		ERW, 롤벤딩, 프레스벤딩, 무계목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
유정용 강관		ERW(중소+대), 무계목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용(대부분 1 회만 사용 가능)
열전달용 강관		ERW, 무계목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전선관		ERW	전기배선 보호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9. 미국 유정관, 송유관 수입물량 및 수입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4.12.31 기준)